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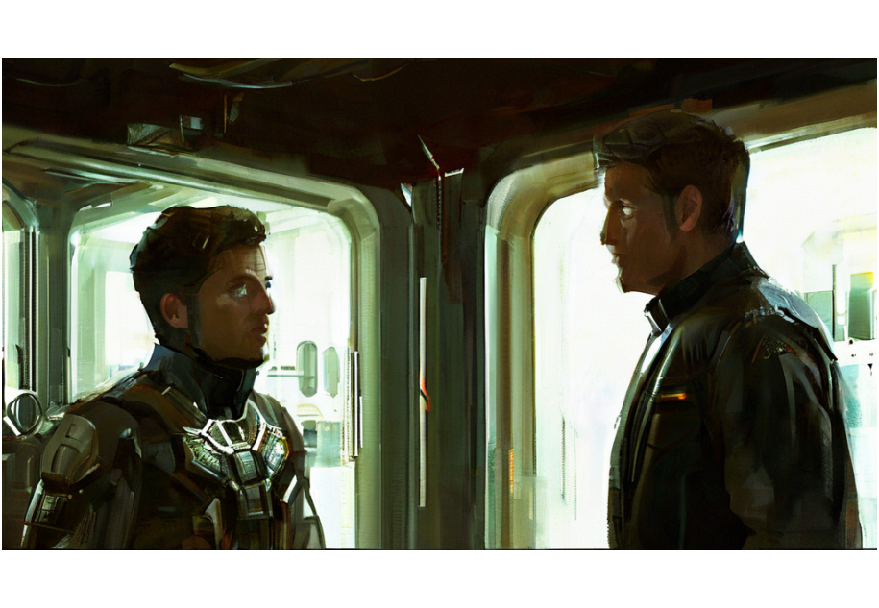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8

❖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너희 아버지의 클론 기술이 탐났던 거야. 아마도 네 아버지를 죽이고 의식이 꺼지기 전에 그 기술을 빼내고 싶었겠지."

백호의 말에 태웅이 의문을 제기했다.



"클론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기술을 빼낸 것 아닌가요? 원장님과 클론으로 돈을 버실 생각이 없으시니까 원장님과도 멀어지신 거구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아."
"그럼 무슨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재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자신만의 병력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테나 허브 역할을 하는 소연을 훔친 것도 그 이유에서고."
"저희처럼 멀티 조종이 가능한 병력을요?"
"우리는 철저히 소규모의 특공 부대 역할을 하며 불법 클론이나 소울라이더들을 잡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들은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병력을 꾸리려 하는 거겠지."
"그건 원장님께서 정치권에도 넘기지 않는 기술이잖아요. 너무 위험하다고. 권력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없다고."
"그렇지. 그러나 저들에게... 나같은 양심을 바랄 순 없지 않겠나?"
"네.... 그렇죠...."
"어쨌든 놈들이 공격을 감행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는 됐으니 그때까지 준비해서 잘해보자고."

이때 재호의 비서가 뛰어 들어오며 말했다.

"원장님! 의장님하고 총리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계속 콜을 하십니다. 얼른 대책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래... 내가 얼른 전화 드리겠다고..."

재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침을 시작했다. 기침 소리에 쇳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태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호의 안색을 살펴보니, 재호의 낯빛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얼른 좀 쉬세요. 큰일 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브리핑을 좀 같이 해줘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재호의 휠체어를 끌고 전략실을 나섰다.

대원들이 동념을 다시 캡슐에서 꺼내주는 동안, 동념은 마음 속으로 소연에게 물었다.

'그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됐고, 너는 그냥 따라오기나 해. 태웅 대장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아니, 태웅이 그렇게 좋아요? 저 멀대 같은 놈이? 지금 의식도 정상이 아닌데?'
'아픔이 많은 친구야. 감싸주고 싶어.'
'아, 정말... 난 저런 스타일 별론데.'
'좀 닥치고 있을래? 더 힘들어지거든.'

동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얼른 좀 쉬어요. 더 말 걸지 않을게요.'

❖

다음 날, 각 의원들의 모습이 벽을 가득 메운 홀로그램 모니터에 떠올라 있는 오리엔티스 브리핑 룸에서 김 의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내가 애초에 한 원장을 안 믿고 옛날 몸을 일부러 살려뒀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나도 골로 가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클론이 불안정한데, 의료보험을 추진하자구요?"

장 의원이 옆에서 거들었다.

"사람들을 살리자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오리엔티스를 밀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애꿎은 희생자가 생긴 건 어떻게 책임질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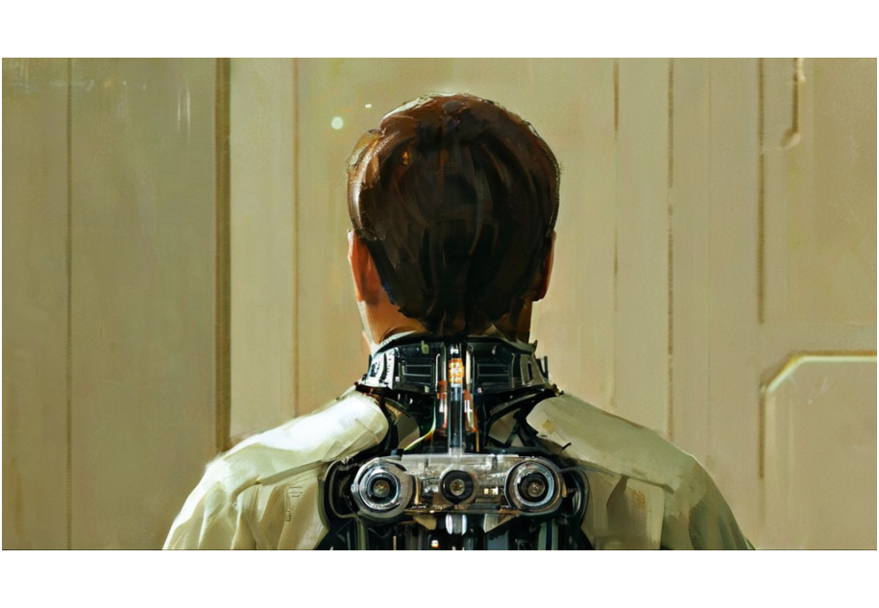
의원들이 각자 항의하는 가운데, 한재호 원장이 진정하라는 손짓을 취하며 말했다.

"우선, 어제 벌어진 네모의 테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희생자들도 발생했지만, 저희 응급 팀이 출동해서 희생자를 최소화 할 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네모가 테러를 벌이면 어떻게 막을 거요?"

김 의원이 질문했다.

"우선 네모의 공격은 위성 전파를 이용한 공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리엔티스가 활용하는 안티 소울라이딩 장갑을 우선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이 몸을 돌려 뒷목에 장착된 묵직한 안티 소울라이딩 장갑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이걸 본 장 의원이 혀를 찼다.



"아니 저 무거운 걸 우리더러 걸치고 다니라고? 목 디스크 환자처럼?"
"어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네모의 위치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네모를 공격해서 테러를 진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선심 한 번 쓰겠다는 표정으로 한재호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질문했다.

"한 원장. 네모를 잡으면 원래 최백호 원장이 갖고 있던 완성된 클론 기술을 확보할 수는 있는 거요, 멜트다운 일어나지 않는?"

잠시 고민하던 한재호 원장이 대답했다.

"우선 네모가 최백호 원장의 근본 기술을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정황으로 보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장 의원이 호통치듯 끼어 들었다.

"그럼 네모를 잡았는데 기술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요? 이 상태로 불안정한 클론을 계속 유지할 거요?"
"불안정하지만, 이미 클론 사용자들은 수명의 제한 없이 살게 된 상황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화를 삭이지 못하고 호통 칠 구실만 찾는 장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린 그냥 안전하게 소울라이딩만 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몸을 사서, 쓰다가 버리고 쓰다가 버리고. 어차피 빈민층에서 좋은 몸들은 무한정 공급되니. 그냥 돈 주고 쓰면 돼요. 그러니 차라리 소울라이딩을 완전 합법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는 듯 했다. 이 말에 태웅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의원님! 그건 너무 이기적인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럼 평생 몸을 팔다가 자신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건 인류가 태어난 이래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지금처럼 몸을 안 팔았나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죽어 왔어요. 그것도 몸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김 의원의 궤변에 태웅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물러났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재호 원장이 끼어 들어 상황을 정리했다.

"여기서 더 이런 토론을 하는 건 무의미 합니다. 우선 저희는 네모를 잡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하시죠."

옆에서 씩씩거리던 장 의원이 소리쳤다.

"한 원장. 우리가 듣기론 이번에 클론에 핵심적 요소인 캣츠아이를 도난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도 지키지 못하는 오리엔티스를 우리가 언제까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래서 차라리 저희에게 조금 더 지원을 부탁 드렸었던 겁니다."

김 의원이 장 의원 대신 대답했다.

"병력을 확장하라고 돈을 줬더니만, 무료로 클론이나 해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러면 우리 군에 흡수 시켜 버릴 거예요."

옆에서 의원들이 '옳소!' 외치며 다시 의원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한재호 원장은 통제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한재호 원장은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세상의 색이 보랏빛으로 잠식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휠체어 위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재호 원장의 기절에 태웅은 기겁하며 한재호 원장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기절한 한재호 원장은 다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태웅은 한재호 원장의 휠체어를 밀고 실험실로 뛰쳐나갔다.

❖

"이머전시! 원장님이 쓰러지셨어! 소연 중사, 얼른 원장님을 내게 라이딩 시켜줘!"

태웅이 동념을 향해 소리쳤다. 동념의 몸에 들어간 소연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한재호 원장과 태웅이 캡슐에 나란히 놓였다. 동념과 준호는 계기판을 체크하며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았다.

"원장님 의식 상태는?"

동념이 질문했다.

"잠시 블랙아웃이지만 의식은 100% 존재합니다!"
"오케이 라이딩 가동!"

동념의 몸을 한 소연의 신호에 맞춰 준호가 소울라이딩을 조작하자, 태웅의 의식이 꺼지고 한재호 원장의 의식이 태웅의 몸으로 이식되는 것이 수치로 모니터 위에 표시되었다.

"라이딩 완료 됐습니다. 전보다 싱크로율이 훨씬 높아지고 빨라졌어요."
"아무래도 자주 태웅의 몸을 쓰셨어서 그런지 싱크로율이 좋은 것 같네."

소연이 동념의 몸으로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캡슐의 뚜껑이 열리고, 한재호 원장이 태웅의 몸으로 캡슐에서 나오며 질문했다.

"내가 아까 기절한 건가?"
"네, 원장님. 태웅 대장이 응급으로 라이딩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한재호 원장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치수였다.

"태웅이에게 늘 미안하구만...."
"수술 장비 마련해뒀습니다."
"고맙네. 바로 집도 들어가지."

❖

태웅의 몸을 한 한재호 원장이 직접 자신의 몸을 수술의 집도를 주도하는 초현실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념의 머릿 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피어났다.

동념은 질문을 묵혀두는 법이 없기에, 바로 한재호 원장에게 질문했다.

"원장님은 왜 클론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물론 전에 연설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클론을 해주시는 거에 감동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더 많이 클론 해주시려면 먼저 몸을 살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동념이가 얘기한 건가?"
"네."
"자네는 어디서 클론된 건지 알고 있나?"

동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는 클론이 아닌데요? 부모님은 퍼스트 임팩트 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임팩트로 인한 돌연변이인가? 의식이 죽지 않는다면서."
"글쎄요.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재호 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데 집중하면서 말했다.

"그렇게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내 몸이 버텨주면 좋겠다만, 그게 안 된다면 언젠가 나도 클론을 해야겠지...."
"네.... 제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맙네... 근데 자꾸 동념 군만 이야기 하는데 소연의 의식은 좀 어떤 상태이지?"

순간 동념이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고 자신의 뺨을 두드리며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어? 그러게요? 소연 씨! 소연 씨! 제 말 들리세요?"

소연의 대답이 없자 당황하는 동념에게 치수가 소리쳤다.

"너 얼른 실험실로 따라와!"

Continued to ep.09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